

간호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영향요인

모 진 아¹

¹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재활표준연구과 연구원

Awareness of Disabled Person and 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the Awareness among Nursing Students

Mo, JinA¹

¹Researcher,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Research Institute,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Standard & Polic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awareness toward disabled persons among nursing students and to identify associating factors for their awareness of disabled persons. **Method:** 410 nursing students completed the survey on the awareness and frequency of contacts toward disabled persons, self-efficacy,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Results:** The scores in awareness, contact,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was 50.53±7.53, 52.41±10.61, 79.21±10.88 and 67.04±9.47, respectively, indicating. Awareness of disabled persons ha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frequency of contact ($p<.001$),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p=.045$),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p<.001$) and self-efficacy ($p=.029$). **Conclusion:** To improve awareness of disability, we need to improve student's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and clinical practice by modifying the curriculum. Thereby awareness toward disabled and the weak can improve naturally.

Key words : Disabled persons, Personal satisfacti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wareness, Self-efficacy

서 론

연구의 필요성

2008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등록 장애인은 총인구의 4.3%로 3년 사이 25.8%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고, 이중 89.4%가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 장애를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나(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 건강한 비장애인도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Byun et al., 2006).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태도는 수년간 부정적이었으며 부랑아들만큼이나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왔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동, 청소년, 대학생 등의 비장애학생(Kim, 2006; Lee, 2005; Park & Cho, 2004)과 일반인(Jeong & Kim, 1998)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인식 및 태도 또한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Park, Lee, & Kim, 2010; Tervo, Palmer, & Redinius, 2004). 그러나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에 따라 그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장애인 복지의 최종 목적인

주요어 : 장애인,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인식도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Mo, JinA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Research Institute 406room, 111 Gaorigil, Gangbuk-gu, Seoul 142-884, Korea

Tel: 82-2-901-1928 Fax: 82-2-901-1930 E-mail: mo1102@naver.com

투고일: 2011년 3월 31일 1차 수정일: 2011년 5월 11일 2차 수정일: 2011년 6월 1일 게재확정일: 2011년 6월 11일

사회통합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의료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는 대상자의 치료에 대한 반응, 재활, 사회로의 복귀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Jones & Itamar, 1997; Tervo et al., 2004), 효율적인 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재활을 위해서는 의료인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장애인이 주도적, 적극적으로 재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Lee, 2005; Tervo et al., 2004).

지금까지 수행된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한 국외 연구로는 의과대학생(Tervo et al., 2004)과 간호사(Brillhart, Jay, & Wyers, 1990), 물리치료사(Lyons, 1991) 등 일부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국내 연구로는 일반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의료진(Kim et al., 2010)을 대상으로 한 일개 연구에서도 의료진을 하나의 집단으로 분석하였을 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간호전문직 종사자들의 전문직 사회화는 처음에는 외부인과 유사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간호에 대한 관점이 차츰 변화하면서 간호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 신념, 가치, 윤리적 표준 등을 내면화하고 이를 자기 이미지와 행동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발달하게 되므로(Chitty, 2001; Self, Olivarez, & Baldwin, 1998), 간호학생들이 간호교육을 받는 것은 전문직사회화로 이행되어 가는 과정이며(Ha & Park, 2009), 전문직 사회화 과정은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간호대학생이 경험하고 습득하는 간호전문직 사회화는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의 영향을 받는다. Seo (2007)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간호전문직 개념과 임상실습 만족도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에 대한 개념이 높아졌다고 하면서, 간호학생의 긍정적 전문직 자아개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Shinyashiki 등(2006)은 간호대학생 및 간호사들이 환자의 건강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전공인 간호학에 대해 만족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Barrett와 Myrick (1998)은 간호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뿐만 아니라 간호학에 대한 전공만족도 역시 간호사들의 전문직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임상실습과 간호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간호전문직 사회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접촉경험이나 관심을 측정한 연구는 있었지만(Kang et al., 2003),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와 장애인과의 접촉경험(Au & Man, 2006; Lyons, 1991; Tervo et al., 2004)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결과는 상이하였다.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는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참여하고 있는 집단과 활동의 만족도 또한 자기효능감과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Honh & Kim, 2010), 전공 및 직업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여 건강전문직의 인식 및 태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Shinyashiki, Mendes, Trevizan, & Day,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대부분 마치고 간호사로서 활동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있는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간호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자기효능감 및 간호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의 인식도의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장애인 재활간호 교육 및 정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특성 및 장애인과의 접촉경험, 간호전공과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고, 장애인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학과 학생들의 장애인 접촉경험 정도, 자기효능감, 간호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한다.
- 간호학과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한다.
- 간호학과 학생들의 장애인 접촉경험 정도, 자기효능감, 간호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간호학과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용어의 정의

●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장애인 즉 건강이나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에 대한 감정이나 생각, 인식정도를 의미하며(Yuker & Hurley, 1987), 본 연구에서는 Attitude Towards Disabled person scale (ATDP-Form 0)를 Park과 Cho (2004)가 우리말로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자기효능감

개인이 어떤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Bandura,

1997),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느끼는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말하며 Sherer와 Maddux (1982)에 의해 개발된 자기효능감 척도를 한글로 번역한 Han (2009)의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장애인과의 접촉경험

장애인과의 접촉경험은 장애인 혹은 장애학생과의 접촉의 양과 질적인 것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으로 비 장애학생이 장애인 혹은 장애가 있는 학생과 만난 경험을 말한다(Gweon, 2004).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대상으로 장애인과의 접촉의 양과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20문항의 CDP (Contact with Disabled Person scale)(Yuker & Hurley, 1987)를 한글로 번역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전공 만족도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로서(Lee, 2004), 본 연구에서는 Lee (2004)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란 임상실습의 다양한 측면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정서반응으로(Kang, 2009), 본 연구에서는 Kang (2009)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장애인 접촉경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차이를 파악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시행된 탐색적 서술연구이다.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2007년 간호통계연보에 등록된 서울과 인천의 4년제 간호학과 각 1곳과 3년제 간호과 각 1곳을 편의 추출하여 해당학교 간호학장님에게 연구목적과 방법 및 윤리적 고려에 대해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익명성, 비밀 보장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 참여 포기가 가능함을 언급하고, 불이익이 없을 것을 명시한 후 동의를 받아 4년제 간호학과 4학년 학생 전체 148명과 3

년제 간호학과 3학년 학생 전체 262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기기입방식으로 작성하게 한 후 결측치를 제외한 401명(97.8%의 회수율)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이다.

연구 도구

●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인식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Yuker와 Hurley (1987)가 개발하고, Lee (2005)와 Park과 Cho (2004)가 우리말로 수정 보완하여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6가지 하위 개념을 사용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식 없이 무조건적인 분리를 바라는 ‘무조건적인 거부’, 장애와 반응자 자신의 약점을 동일시하는 ‘왜곡된 동일시’, 장애인은 심리적으로 왜곡되었을 것이라 믿는 ‘추론적 정서장애’, 장애인의 다른 능력까지 제한된 것으로 여기는 ‘타 기능의 제한’, 가까운 관계가 되길 거부하는 ‘친교의 거부’, 장애인과 접촉 시 느끼는 불안감 등의 ‘접촉 시 긴장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0문항으로 이루어 졌으며, 최저 20점에서 최고 1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인을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100점으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도구 개발 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86이었고, 내적일관성, 안전성은 .75~.85 (Tervo et al., 200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6이었다.

●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느끼는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Sherer와 Maddux (1982)가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로서 Han (2009)이 번역,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7문항 5점 척도로 Han (200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α =.71이었다.

● 장애인과의 접촉경험

장애인과의 접촉경험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과의 접촉의 양과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20문항의 CDP (Contact with Disabled Person scale)(Yuker & Hurley, 1987)를 한글로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며, 도구는 Likert scale 5점 척도로 점수 범위는 최저 20점에서 최고 10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접촉 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3이었다.

● 전공 만족도

Lee (2004)가 간호학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호학 전공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연구도구로 총 18문항의 Likert scale 5점 척도의 도구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Lee (200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alpha=.90$ 이었다.

● 임상실습 만족도

Kang (2009)이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교과목, 학생의 실습내용, 간호학생의 실습지도, 간호학생의 실습환경, 학생의 실습시간, 실습평가 등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나타나는 정서반응을 측정하는 도구로 Likert scale 5점 척도로 총 20문항으로 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ang (2009)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9$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7$ 이었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7.0을 이용해 분석하였고,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간호교육 특성은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 접촉경험, 전공과 임상실습 만족도, 자기효능감 및 장애인 인식도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의 기술통계 및 t-test, ANOVA, χ^2 검정을 사용하였다.
- 장애인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인에 대해서는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학과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장애인 접촉경험 정도, 자기효능감, 간호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총 401명의 간호학생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은 전체의 5.5%를 나타냈으며, 3년제 간호학생 253명, 4년제 간호학과 학생 148명이었다. 연령에서는 20세 미만이 12.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21~22세가 51.6%를 차지하면서 제일 많았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56.4%였고, 무교인 경우에는

43.6%로 나타났다. 학교 성적성취점수는 3.0~3.9가 74.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4.0이상이 17.7%로 많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40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22 (5.5)
	Female	379 (94.5)
Educational system	College	253 (63.1)
	University	148 (36.9)
Age	≤ 20	51 (12.5)
	21 ~ 22	207 (51.6)
	23 ~ 24	85 (21.3)
	≥ 25	58 (14.6)
Religion	Yes	226 (56.4)
	No	175 (43.6)
Grade	< 2.0	2 (0.5)
	2.0 ~ 2.9	27 (6.7)
	3.0 ~ 3.9	299 (74.6)
	≥ 4.0	71 (17.7)

장애인 접촉경험 정도는 52.41 ± 10.61 점이었고, 자기효능감 정도는 2.84 ± 0.27 점 이었다. 또한, 전공만족도는 3.96 ± 0.54 점이었고, 임상실습만족도는 3.35 ± 0.47 점이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는 2.52 ± 0.37 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egree of Contact, Self-Efficacy, Satisfaction & Awareness (N=401)

Variables	M±SD	Min	Max
Contact	52.41±10.61	14.00	78.00
Self-efficacy	2.84± 0.27	1.83	2.44
Study satisfaction	3.96± 0.54	2.44	5.00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3.35± 0.47	1.70	4.90
Awareness	50.53± 7.53	29.80	72.40

간호학과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간호학과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를 비교한 결과 남학생이 52.80 ± 0.43 점으로 여학생 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127$). 다음으로 학제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를 비교해 본 결과, 3년제 간호과 학생들은 50.20 ± 0.40 점이고 4년제 간호학과 학생들은 50.80 ± 3.30 점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488$). 나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를 비교해 본 결과 나이에 따른 통계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유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를 비교해 본 결과 종교가 있는 경우에 50.20 ± 0.39 점이고 없는 경우에는 50.60 ± 0.35 점으로 두 집단에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p=.613$). 마지막으로 학업성적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성적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198$)(Table 3).

Table 3. Aware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401)

Characteristics	Categories	Awareness		
		M±SD	t or F	p
Gender	Male	52.80±0.43	0.393	.127
	Female	50.20±3.70		
Educational system	College	50.20±0.40	5.750	.488
	University	50.80±3.30		
Age	≤ 20	51.00±0.39	3.388	.172
	21~22	51.00±0.38		
	23~24	50.60±0.34		
	≥ 25	51.40±0.37		
Religion	Yes	50.20±0.39	1.863	.613
	No	50.60±0.35		
Grade	< 2.0	48.00±0.38	18.891	.198
	2.0~2.9	47.60±0.27		
	3.0~3.9	50.60±0.39		
	≥ 4.0	51.20±0.30		

간호학과 학생들의 장애인 접촉경험 정도, 자기효능감, 간호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간의 상관관계

간호학과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과의 접촉경험 정도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접촉정도가 많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인식정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효능감 정도를 비교해

본 결과, 인식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29$), 자기 효능감 정도가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r=.072$, $p=.045$), 임상실습만족도 또한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031$, $p<.001$)(Table 4).

간호학과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장애인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장애인 접촉경험, 간호학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을 비교하였다. 각 요인들은 모두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로 장애인과 접촉경험은 9.5%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공만족도는 0.5%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는 3.1%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은 3.2%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에 대해서 4가지의 변수들은 16.3%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특성 및 장애인과의 접촉경험, 자기효능감, 간호전공과 임상실습만족도에 따른 장애인의 인식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파악하고, 장애인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이중 3년제 간호학생 253명, 4년제 간호학생 148명의 자료를 수

Table 4. Relationship of Contact, Self-Efficacy, Satisfaction & Awareness (N=401)

Variables	Contact	Self efficacy	Study satisfacti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elf-efficacy	.041 (.410)			
Study satisfaction	.058 (.245)	.016 (.749)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060 (.232)	.049 (.326)	.502 (<.001)	
Awareness	.003 (<.001)	.032 (.029)	.072 (.045)	.031 (<.001)

Table 5. Factors affecting to the Awareness of Disabled Person (N=401)

Variables	B	S.E.	β	Adj R ²	t	p	F(p)
Contact with disabled people	2.522	.095	.003	.095	26.527	<.001	
Study satisfaction	0.050	.035	.072	.005	2.008	.045	9.719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0.024	.040	.031	.031	0.613	<.001	(<.001)
Self-efficacy	0.043	.067	.032	.032	0.636	.029	

집하여 총 401명의 간호학생의 자료를 분석하였고, 이 중 남학생은 전체의 5.5%를 나타내었다. 이들의 성별, 학제, 나이, 종교, 성별에 따른 요인들간에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장애인과의 접촉경험($p<.001$), 자기효능감($p=.029$), 전공($p=.045$) 및 임상실습($p<.001$)의 만족도는 장애인의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과와의 접촉경험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 52.41 ± 10.61 점으로 홍콩에서 실시한 Au과 Man (2006)의 연구에서 제시한 대학생 점수 34.50점과 비교하였을 때 높은 점수이며, 국내에서 실시한 Kim 등(2010)의 연구 결과에서 제시한 의료인의 44.60점과 일반인의 45.00점과 비교하여도 높은 점수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는 기존연구에서의 대상자들과 달리, 2002년 이후 대학입시에 봉사활동 등의 점수를 배점하면서 학생들의 봉사활동정도가 많아지고, 이로 인한 접촉경험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장애인 인식도 점수는 50.53 ± 7.53 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연구한 것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미국과 캐나다에서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Tervo et al., 2004) 연구결과에서 77.80점과 비교한 수치보다도 낮으며, 국내에서 실시한 의료인과 일반인 비교 연구(Kim et al., 2010)에서 나타난 의료인 57.40점, 일반인 57.30점과 비교하여도 낮은 점수이다. 이는 인종, 문화적 특성에 의해 백인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보다 긍정적이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Au & Man, 2006). 이는 증가된 장애인과의 접촉과 교육이 긴밀하고 적극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한 경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기존연구(Jeong & Kim, 1998)를 지지하는 것으로 체계적이지 못한 장애인과의 접촉이 학생들의 긍정적인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시 한 번 경고 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기효능감과 전공 및 임상실습만족도 정도는 자기효능감 정도가 2.84 ± 0.27 점으로 Sherer와 Maddux (1982)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나온 2.72 ± 0.22 점 보다는 높았고, Shinyashiki 등(2006)의 연구에서 전문직들을 대상으로 한 자기효능감 점수 3.03 ± 0.1 점 보다는 낮았다. 하지만 이는 아직 전문직으로의 입문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존연구와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간호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 본 결과에서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들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교육을 통해서 조절 가능한 자기 효능감, 전공 및 임상실습만족도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를 변화 시킬 수 있음을 이야기 한 기존연구(Kim et al., 2010)를 참고하여 보면, 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장애인 접촉경험,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을

비교하였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으며 16.3%의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인 전공과 실습만족도가 장애인 인식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했던 기존연구(Kang, 2009)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곧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인식도는 바뀔 수 있음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적 특성에 의한 인식도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이 미치는 설명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간호사는 어느 전문직업군 보다도 인도주의와 박애주의, 생명존중을 기본이념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간호실무 능력뿐만 아니라, 고도의 간호윤리와 가치관, 전문직 정체성이 강조되는 전문직이다(Chitty, 2001; Self et al., 1998). 하지만, 대학교육과정에서는 필요한 전공과목들을 이수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만족감에 대한 부분은 등한시되기 쉽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환자 및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공 및 임상실습 만족도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대학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간호학생들의 전공 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 임상실습 환경의 개선 등이 필요하고, 현재는 일부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재활간호 및 노인 간호 실습에 대한 효과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4개의 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영향요인을 파악해보고자 시도된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추후 병원에 취업중인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임상근무를 하면서 느끼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대학교육제도 등에 대한 수요조사와 교육과정 필요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교육 및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특성 및 장애인과의 접촉경험, 간호전공과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른 장애인의 인식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파악하고, 장애인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하지만, 대상자들은 성별, 학제, 나이, 종교, 성별에 따른 요인들간에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장애인과의 접촉경험은 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임상실습만족도에서는 성별과 학제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장애인의 인식도에 대한 부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장애인 접촉경험,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을 비교하였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으며 16.3%의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간호학생들의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전공과 임상실습만족도를 향상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장애인 및 약자에 대한 인식도를 향상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후속 연구로 임상경험을 하면서 인식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Cohort 연구를 통해 임상경험이 인식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 변화가 있다면 개선을 위한 보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연구가 필요 하다고 생각하며, 학생들의 간호학 선택요인 중 성적이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References

- Au, K. W., & Man, D. W. (2006).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A comparison between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29*(2), 155-160.
- Bandura, A. (1997). *Self 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Y: W. H. Freeman and Company.
- Barrett, C., & Myrick, F. (1998). Job satisfaction in preceptorship and its effect on the clinical performance of preceptor.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7*(2), 364-371.
- Brillhart, B. A., Jay, H., & Wyers, M. E. (1990).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Rehabilitation Nursing, 15*(2), 80-85.
- Byun, Y. C., Kim, S. H., Yun, S. Y., Choi, Y., Gye H. B., Kwon, S. J., et al. (2006). *The status of disabled people in 2005*.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Chitty, K. K. (2001). *Professional nursing: Concepts and challengers* (3rd ed.). Philadelphia: W. B. Saunders Company.
- Gweon, G. J. (2004).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xperience to contact with the disabled on a middle-school student's attitude toward accepting integrated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illa University, Busan.
- Ha, N. S., & Park, H. M. (2009). The impacts of professional socialization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on role conflict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15*(2), 47-56.
- Han, M. K., & Kim, S. H. (2009).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players towards the referee's decision in wheelchair basketball. *Rehabilitation Research, 13*(3), 75-92.
- Honh, L. S., & Kim, S. S. (2010). The effect of training satisfaction by tackwondo participation motivation on self-efficacy and physical self-efficacy,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19*(4), 285-295.
- Jeong, J. K., & Kim, D. Y. (1998). Attitudes toward disabled people on Korea. *Research in Special Education, 2*, 13-14.
- Jones, K. E., & Itamar, E. T. (1997). Making our offices universally accessible: guidelines for physicians.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156*(5), 647-656.
- Kang, H. O. (2009). *A study on th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Kang, H. S., Cho, K. J., Ji, E. S., Jang, M. H., Lee, K. H., Choi, E. Y., et al. (2003). Factors affecting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Nursing, 6*(2), 164-172.
- Kim, K. H. (2006). A study of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children with disabilities: Focusing on the region Busan and Gyungnam.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13*(1), 27-48.
- Kim, K. S., Park, Y. H., Lee, B. S., & Kim, J. Y. (2010). Comparison of attitudes toward and contact with disabled person among health care professionals, lay persons and disabled persons.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Nursing, 13*(1), 13-22.
- Lee, D. J. (2004). *The relationship among satisfaction o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J. S. (2005). A study on attitudes toward person with disabilities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26*, 151-176.
- Lyons, M. (1991). Enabling or disabling students' attitudes toward persons wit disabilities. *The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5*(4), 311-316.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 July). *Statistics of disabled people in 2007*. Retrieved March 21, 2009, from <http://www.mw.go.kr>
- Park, G. S., & Cho, H. J. (2004). Attitudes of normal students and students with disabilities toward the disability.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20*(3), 235-266.
- Self, D. J., Olivarez, M., & Baldwin, D. C. Jr. (1998). Clarifying the relationship of medical education and moral development. *Academic Medicine, 73*(5), 517-520.
- Seo, W. H. (2007). *Nursing college students'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their satisfaction with clinical nursing practicu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Sherer, M., & Maddux, J. E.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 Shinyashiki, G. T., Mendes I. A., Trevizan, M. A., & Day, R. A. (2006). Professional socialization: Students becoming nurses. *Revista Latino-Americana de Enfermagem, 14*(4), 601-607.
- Tervo, R. C., Palmer, G., & Redinius, P. (2004). Health professional student attitudes towards people with disability. *Clinical Rehabilitation, 18*(8), 908-915.
- Yuker, H. E., & Hurley, M. K. (1987). Contact with and attitudes toward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measurement of intergroup contact. *Rehabilitation Psychology, 32*(3), 145-154.